

금강경과 달마상법 ①

김선형 (인천대 석좌교수)

입의 산물까지 꿰뚫어야 관상 보여

1. 금강경으로 본 달마상법

일반적으로 '금강경과 달마상법'이라고 하면, 상(相)을 매개로 한 이 둘의 관계론적 접근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목의 의도는, 금강경(金剛經)과 달마상법(達磨相法)의 단순한 관계에 영글을 맞추어 조망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원래 불설(佛說) 대승 경지의 금강경에서는 상(相) 자체가 허망하다는(凡所有相 皆是虛妄) 것을 전제로, 모든 상이 상이 아닌 본디 자리를 보아야(若見諸相非相) 실상을 본다고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중생제도 차원의 달마상법은 아무리 마음이 근본이라도 해도 이미 형상화되어 있는 얼굴의 형모를 보고 사람의 명운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이 둘을 같은 반열에 놓고, 단순히 상호 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달마상법의 사상적 배경인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相)이, 실제로 달마상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적용되었는가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풀어 나갈 생각이다.

선(禪)의 창시자인 달마 선사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금강경을 체득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의 원리를 원용하여 자신의 상법을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달마 선사가 그 관찰 대상으로서 상(象)이나 상(像)이 아닌 금강경의 상(相)으로 설정함으로써, 경에서 말한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我人相衆生相壽者相) 등 제상(諸相)을 기본 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달마 선사가 설정한 상은 마음을 가리키는 내상(內相)과, 외형과 얼굴의 생김새인 외상(外相)을 포괄한 개념이다. 그러면서 그는 외형에 나타나 있는 모든 상은 비상(非相)인 심상(心相)만 못하기(萬相不如心相) 때문에 관상은 먼저 신(神)을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외상은 내상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것은 내상의 반영이고 발로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마음의 뉘뉘이, 그 씩씩이가 곧 얼굴의 형모로 발현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상은 외모와 얼굴의 생김새, 즉 용모와 모습, 형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형상의학(形象學)에서 말하는 상(象)은 조짐이나 징후의 의미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그리하여 여기서의 관상, 즉 상(相)이나 의사가 상(象)을 본다는 것은, 가시권에 들어오는 외형 또는 얼굴의 형모를 관찰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살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달마 선사가 원용한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相)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적 의미의 개념과는 비교 자체가 무리일 만큼 전혀 다른 차원이다. 금강경에서 상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으로 볼 수 있는 반야제일계에서는, '상은 다 허망하고, 모

든 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보아야 여래를 본 것'이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상의 본디 자리를 보지 못한 경지에서의 관상(觀相)은 실상을 보지 못한 것으로 규정할 의미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금강경은 "모든 중생이 다시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없으며, 또한 법상이 없으며 법 아닌 상도 없다" 하였다. 이것은 상 자체에 대한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색즉시공의 공(空) 도리보다도 차원을 높인 것이다.

이와 같은 금강경의 상관(相觀)은, 그것이 비상(非相)의 본디 자리를 보아야 실상을 볼 수 있다거나, 공(空)도리의 상위 개념이라고 풀이 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견성(見性)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체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만으로도 종지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나 부주어상(不住於相)의 경지로서, 우리 범부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에 머물거나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실상을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의 상관을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우주 만물, 인간계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상은 실체가 없고 허망한 것이 다. 만약 그것을 보려면, 그 상이 상이 아닌 것, 상이 상이 아닌 것까지 아닌 본디 자리를 보아야 실상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유추를 전제로 보면, 금강경에서 말한 상은, 적어도 그것이 외적 형모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오히려 그것은 현상(現相)과 함께 비상(非相)의 마음자리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관상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달마 선사가 심상(心相)을 중시하면서, 얼굴을 살필 때는 신(神)·정(精)·기(氣)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무리 얼굴의 형모가 뛰어나게 잘 생긴 경우라도 신·정·기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얼굴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2. 달마 선사의 사상과 관상

달마(達磨) 선사는 남인도 향지국(香至國)의 셋째 왕자로 태어났다. 그는 부처님의 법통을 이은 28대 조사로서 520년경 남북조시대인 양무제(梁武帝) 때 중국에 들어와서 송산의 소림사(小霖寺)에서 9년 동안을 면벽, 정진하여 견성한 선(禪)의 창시자다. 당시에 중국은 가람불교, 강설불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달마 선사는 이에 도전, 좌선을 통하여 견성의 길로 바로 나가는 새로운 기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달마 선사에 관한 원전의 기록은 지극히 미흡한 편이다. 우선 그의 출생년도도 분명치 않고, 열반 역시 528년경으로 추정될 뿐이다. 최근에 둔황(敦煌)에서 출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금강경 등 대승경

전을 중시하였고, 특히 근본사상으로서 이입사행(二入四行)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선어록에 따르면, 달마 선사의 핵심사상인 이입사행은,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으로서, 선정에 드는 두 가지 길과 네 가지 행동을 말한다. 여기서 이입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한 입문을 말하고, 행입은 실천을 통한 입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왕관도 마다하고 출가하여서 견성을 위한 선을 창시하여 참선에 정진하면서 이입사행의 실천에 몸 바쳐 온 달마 선사가, 왜 사람의 명운을 추론하는 관상에 관심을 두고, 그것도 관상학을 집대성하여 상전비결(相 秘訣)을 남겼을까?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중생제도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해의 집곡에서 해매고 있는 듯 중생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상법의 체계를 세운 것이다.

원래 달마 선사는 연기설(緣起論)에 근거하여 사람은 수억 겁 생 동안에 걸친 업(業)에 의하여 태어났고, 그것의 반영에 따라 얼굴의 형모가 생겨났으며, 거기서 파생된



김선형 교수는 ...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교수와 인천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다. 인천대학교 부설 인천시민대학을 설립했으며 송도이전기획단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이며 저서로는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 <중공군의 정치적 기능> <북한군의 기능과 역할> 등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
이입사행 달마선사의
관상학 집대성은
중생제도의 방편
얼굴·마음 실체 같다는
진리 알려주기 위한 가르침

“
눈은 정신이 머무르는 집
얼굴에서 살펴야 할 것으로
생명 원동력 담긴 눈 품아

결과에 따라 길흉화복의 업보를 받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테면, 마음은 업의 산물이고, 얼굴은 업의 산물인 마음의 반영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얼굴은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제 면에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읽으면 얼굴의 생김새를 유추할 수 있고, 얼굴의 형모를 관찰해도 마음의 판별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달마 선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근본 자리인 마음을 수련함으로써, 그 사람의 시련과 고통을 덜어주는데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방편이 곧 달마상법의 체계화로 나타난 것이다.

3. 달마상법의 특성

동양관상학이 서양관상학과 함께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체계를 세우고, 그 기법을 정립한 것은, 대략 1500년 전의 일이다. 그 대표적 생벽은 달마 선사와 함께 마의상법(麻衣相法)을 정립한 마의(麻衣) 도사이다. 마의 도사는, 평생을 벼슬은커녕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마의만 입고 깊은 산의 석실에 기거하면서 도를 닦고, 관상학의 정립에 전념하였다. 그는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선도(仙道)나 유교에 심취한 흔적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교를 특별히 중시하면서, 인간의 부귀영화나 오복을 누리는 것을 중요한 가

치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달마 선사는 이와 달리 스님 가운데서도 견성성불을 지향하는 선의 창시자이기 때문인지, 눈을 중시하면서 신(神)·정(精)·기(氣), 특히 투철한 정신력과 지적 능력,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마의 도사가 부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보고, 그것을 대변하는 코에 50%의 비중을 부여한 데 반하여, 달마 선사는 그것을 파격적으로 눈썹 등과 같은 5%의 비중으로 경시한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달마 선사는 얼굴의 주요 부위별 비중을 눈 50%(眼五分), 이마 30%(額三分), 그리고 눈썹·입·코·귀 20%(二分)로 배정하였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마의 도사가 코를 50%의 비중으로 중시한데 대하여, 달마 선사는 그것을 눈썹·입·귀 등과 동격으로 취급하여 각기 5%의 비중으로 평가절하한 점이다. 이것이 마의상법과의 차이점이고, 달마상법의 독자적인 특성이 된다.

그리하여 달마 선사는 얼굴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신(神)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신의 핵심은 신기(神氣)인데, 이것은 신의 외부 발현상으로서 정신작용은 물론, 정기와 혈기, 경기 등을 포괄하고, 생명 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정신의 기운, 즉 지적능력과 의지력, 결단력, 돌파력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

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의 정도를 가능하게 되어 서는, 달마 선사가 50%의 비중을 배정한 눈을 주로 살핀다. 그는, "사람이 잠이 들면 신은 마음에 있고, 깨어 있을 때는 눈에 있다. 눈은 정신이 머물러 휴식하는 집(精舍)이라고 설파하였다. 당시에는 뇌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눈 자체의 정신 작용을 인정하고, 그것을 얼굴에 있는 유일한 마음의 신호등으로 치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귀천의 분별은 눈의 신에 담겨 있고, 사람의 됨됨이 역시 눈빛으로 가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달마 선사의 지론은, 그가 사람의 명운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과, 그것을 대변하는 눈의 비중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였는가를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내치고, 운명을 개척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정신력과 마음 씩씩이를 놀라울 정도로 절대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달마 선사는 인간의 행·불행은 업의 덩어리인 정신, 즉 마음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